

민주사회의 활력소

박 영 숙 60대 으뜸지기

오늘 우리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심각도는 반세기동안의 민족의 숙원이었던 민족통일의 물꼬트임의 환희나 민족의 쉽지 않은 영예라고 할수도 있는 노벨평화상 수상의 감격도 빛바래고 숨 죽이게 할 정도이다. 산업계, 정치계, 교육계 어느 현장에서도 생기를 느낄수 없는 것은 물론 꼭 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유독 활기 넘치는 집단을 만나게 된 것은 신명나는 일이다. 그것은 지난 11월 10일에서 13일까지 여성환경연대가 제주도에서 개최한 여성환경활동가전국연수회에 참가한 52명의 중견환경인에서 풍겨나온 정기에서 느낀 것이었다. 이들이라고 별나라에서 사는 것은 아닐터인데 어째서 일까. 그 이유는 분명 그들에게는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들에서 힘을 받는 것은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가부장제문화에 저항하면서 주민자치운동, 생협운동, 녹색지역만들기, 환경친화적인 생활운동등을 주체적으로 펴면서 나름대로 세상바꾸기에 확실히 수준높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데서였다. 그 열기가 연수회에서 더해진 것은 각자 외롭게 분투하던 활동가들이 만남과 대화라는 스킨십을 통해 공감하는 문제와 과제를 함께 풀어내면서 동역자로서의 연대관계가 이루어진데서였다. 홀로가 아닌 여럿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잠재력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원리에서이다.

최근 어느 신문 오피니언 난에서 보면 냉전시대와 세계화시대의 다른 점은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 라는 데서 “당신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서 전자가 적대적인 편가르기 시대였다면 후자는 연결을 중시하는 네트워크의 시대라는 것이다. 연대중에서도 여성환경연대와 같이 다양성의 융합체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보다 크게 발휘할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속담이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1년반동안 주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슬을 꿰는 일이다. 금번 제주연수회에서 구슬중에서도 출중한 보석 52개를 엮을수 있었던 것은 여성환경연대의 지역핵심을 구축한 것이며 이들로해서 획기적인 지역네트워크가 확충될것이 분명하다.

곳곳에 흩어져 이미 실천적인 활동을 심도있게 전개하고 있는 여성환경인들이 이제 연대한 힘으로 해내야 하는 것은 현재 국제적, 국내적으로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행동강령인 <의제 21>의 실천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에너지, 물, 자원절약을 비롯해서 쓰레기 감축등의 생활양식개혁운동을 계속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내는 동시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지방의제21>실천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노력은 지구환경을 보전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해서 중시한다. 21세기의 첫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재삼 다짐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야 말겠다” 는 의지의 현실화이며 이것이 바로 민주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활력소이다.